# 신비주의와 신비한 선물의 차이

## (고린도전서 2:1~9)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신비주의와 신비한 선물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신비주의와 신비한 선물의 차이"

6~9절까지는 신비함에 대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가는 맥락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1장에서 혹독하리만치 비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신앙을 관계했기 때문에 결국 분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란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갑자기 화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는 말씀에서 지혜가 언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앞선 1장 22~23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 우리

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6절에 대입해 보자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할 수 있다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기적을 말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7~8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은밀함, 감추어졌던 것,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은 모두 신비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신비함은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도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함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두셨다가 허락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면 신비함에 대한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연관하여 제목을 “신비주의와 신비한 선물의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은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신비주의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비함에 대한 우상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비주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비함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비함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신비란 시간과 공간의 차원 바깥에 있는 4차원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들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있음입니다. 이렇게 4차원 세계에 속한 것들이 3차원 세계에 나타나서 경험되는 일이 신비입니다. 이러한 신비가 4차원 세계에만 머물러 있고 3차원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비함이 아닌 알 수 없음이고 관계없음입니다. 이처럼 4차원의 것이 3차원 세계에서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비는 4차원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3차원 세계의 상식과 논리와 이해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신비란 4차원 세계에 있는 것을 3차원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이 3차원 안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3차원

세계의 상식과 논리와 이해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신비 속에 지혜와 기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4차원의 것을 3차원에서 경험하기를 추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비함을 향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하나님은 신비함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비함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차원 세계에 드러내실 수 있는 신비함은 무한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가장 커다란 유혹 중의 하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신비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꿈, 계시, 환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깨달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헬라인의 지혜 부분에 속하는 일이라면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으로써의 신비란 가지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추구하는데 4차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3차원 세계의 차원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 자체를 3차원 세계의 감각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듯이 4차원 세계의 하나님을 3차원 세계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증거를 3차원 세계의 방식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감각적으로 느끼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 등으로 알기 원하고 혹은 기적을 원하며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신비주의와 신비한 선물의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비주의가 이러한 것이라면 “신비한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3차원 세계에 대해 가려져 계십니다. 3차원의 세계란 우리가 오감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하나님을 3차원 세계의 방식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신비주의의 특성 중 하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3차원의 차원에서 만나거나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려져 계신 그대로 하나님을 인격의 작용인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이라는 감각으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3차원 세계의 경험을 떠나 4차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의식과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

니다.
신비함을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반면 믿음은 하나님을 3차원 세계로 끌어들이려 하는 대신에 4차원 세계인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사실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3차원 세계에서 오감으로 붙잡으려 하거나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감각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3차원 세계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의식과 마음으로 좇았습니다. 그런데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는 의식과 마음이 4차원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4차원 세계가 3차원 세계로 내려와서 경험되기를 바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경험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4차원을 3차원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식과 마음이 3차원을 떠나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비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신비함의 재벌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신비한 것들을 꿈이나 계시나 환상으로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으며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나 기적까지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선물은 구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입니다. 구해서 받았다면 선물이 아닌 쟁취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구한 적도 없고 의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는 일에 전념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3차원의 삶 속에 신비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신비한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나의 이해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신비한 계획들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2장 5절까지 “말의 지혜”를 그야말로 두들겨 팼습니다. “말의 지혜”는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지혜”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분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들겨 패듯이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지혜”의 의미를 더욱 부

각시키기 위하여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대비시킴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말의 지혜”와 유대인들이 구하던 표적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적용하자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표적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나 표적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나 표적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신비함이 지혜나 기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방식에 하나님이 맞춰지기를 바라거나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신비함을 우상숭배 하려는 신비주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비함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가씨가 재벌가의 3세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재벌가의 재산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재벌가의 재산이 아가씨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재벌가의 재산을 목적으로 청년을 노리다가 발각된다면 내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를 언급합니다. 신비주의자가 신비함을 우상숭배 하는 자라면 온전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함을 선물로 받는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물이 은혜와 은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비함을 선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게 국한되게 주어지는 것이고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을 3차원으로 끌어들여 경험하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식과 마음이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

심을 믿을 때 신비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반면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신비함을 구걸하는 거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날마다 주어지는 신비함의 선물 안에서 살아가는 반면에 신비주의자들은 신비함을 우상숭배 하는 자들이요 거지처럼 구걸하는 자들로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비함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느끼고 받았다고 여기는 모든 신비함은 예외 없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들이 신령함의 껍데기로 과장된 꿈과 계시와 환상과 기적 등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이 될 때 신비한 가정생활, 신비한 직장생활, 신비한 인간관계, 신비한 경제생활, 신비한 건강생활을 비롯한 삶 전반에 걸쳐서 신비한 삶을 선물로 받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1~5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전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 온전한 자들입니다.

이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 1~5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자들에게는 신비함의 재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신비함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온전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는 사전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유일한 좋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보이

지 않는 있음과 보이지 않는 좋음에 대한 증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우리 눈앞에 드러난다면 어떤 것도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어떤 것도 좋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대상의 있음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좋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대상의 좋음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일이 3차원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려져 계십니다. 그렇기에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3차원 세계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3차원 세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와 신비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차원 세계에 나타나셨다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있음과 좋음의 느낌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는 3차원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3차원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의 있음과 좋음의 느낌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3차원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타남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에 3차원에서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셨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있음과 좋음이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 앞에 서있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있음이고 좋음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간혹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대한 죽음 없이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론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3차원 세계에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의식과 마음이 세상 것들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을 느끼고 유일한 좋음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듯이 믿음을 감각으로 삼아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온전한 자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눈과 귀에 가려져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허락해주십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4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신비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신비주의와 다른 점은 바로 신비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함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4차원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신비함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삶에 대한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 정답들이 주어집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삶이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장 경제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계심을 느끼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대상의 있음과 좋음이 죽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이고 유일한 좋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유일한 좋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체험과는 다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3차원 세계에서 몸이 뜨거워지거나 향기가 난다든지 하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함은 그렇게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그 믿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신비함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신비함의 재벌이신 하나님께서는 3차원의 세계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은밀하게 준비하신 신비함을 허락해주십니다.
온전한 자는 인격적인 믿음의 작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유일한 좋음을 십자가 안에서 가지는 사람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의 체질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향해 끌려가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온전한 자들은 신비한 가정생활, 신비한 경제생활, 신비한 직장생활, 신비한 인간관계, 신비한 부부관계, 신비한 부모 자식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진행되는 신비함의 삶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추구해본 적도 없고 구해본 적도 없지만 다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붙잡는 온전함을 통하여 강력한 믿음의 유혹인 신비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함의 재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함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